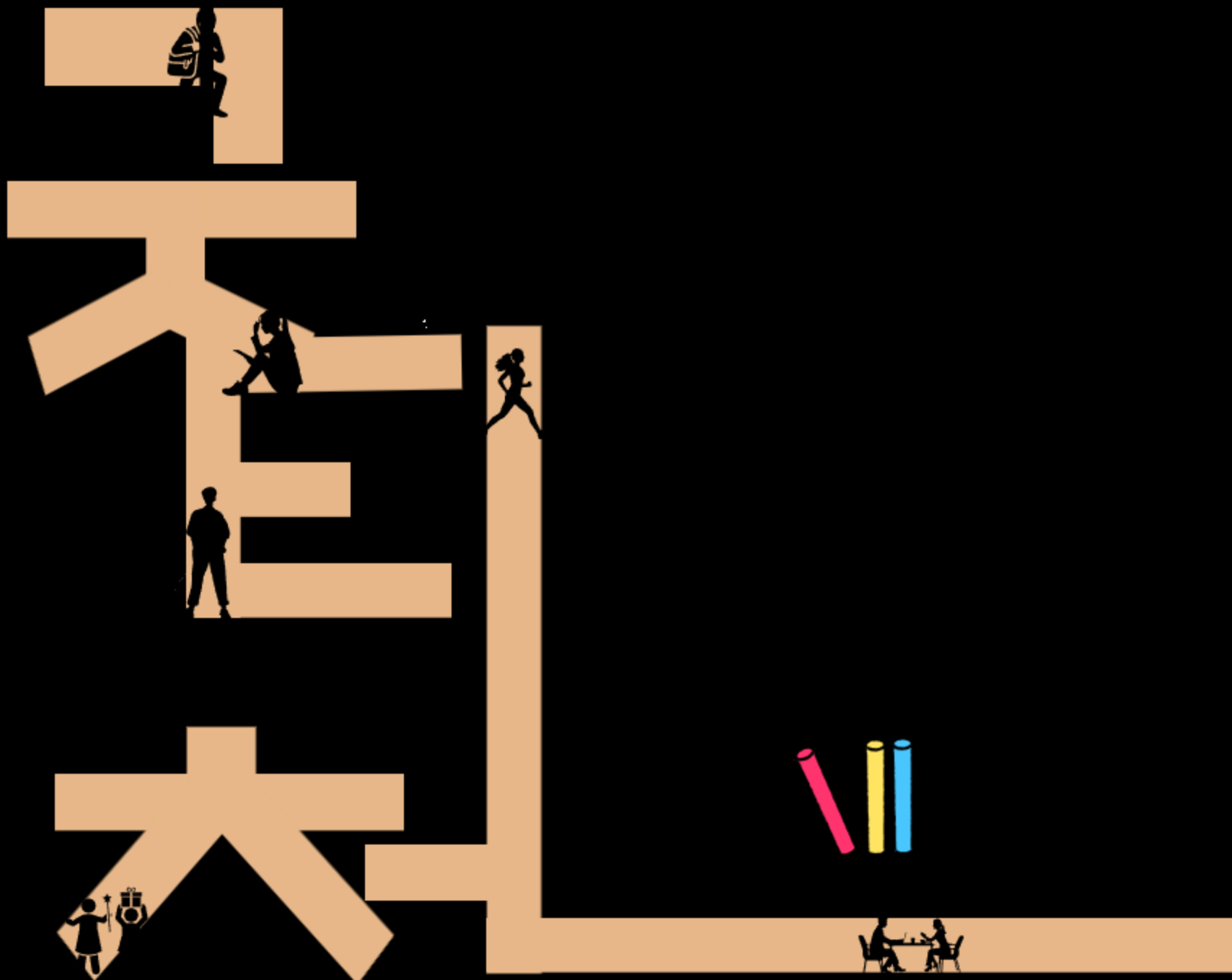


전북교사극단 두르륵 13 번째 공연



일시 2024. 12. 14(토) 4시 / 7시  
12. 15(일) 4시

장소 전주 창작소극장 전주시 완산구 동문길100

작 닐 샤이먼

연출 유인선

출연 김우진 문성철 박재아 백준현  
양지인 유성희 유인선

스텝 문가람 이가을 이승화



# Synopsis

연극 <굿티처>의 원제는 <굿닥터>입니다. '브로드웨이'의 가장 성공한 작가 중 한 명인 닐 사이먼이 러시아의 위대한 극작가 안톤 체호프의 익살스러운 단편들을 각색해서 만든 옴니버스극인 <굿닥터>는 가장 유명한 코미디 명작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이번 작품에서는 원작 중 다섯 개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재채기>, <가정교사>, <유혹>, <의지할 곳 없는 신세>, <생일선물>. 다섯개의 이야기는 서로 다른 인물들이 등장하는 전혀 다른 이야기지만 공통의 관통하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함정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수많은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고 했나요. 일견 우스꽝스럽고 과장된 몸짓은 곰곰이 들여다보면 비애와 연민이요, 우수입니다. 연극은 '작가'라는 등장인물을 통해 다섯편의 이야기를 하나로 잇습니다. 작가는 삶과 글쓰기의 부조리함을 자각하는 인물입니다. 도무지 써지지 않는 글, 그러다가 어느순간 아이디어는 튀어오르고 작가 자신도 이 이야기의 전개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맺게 될지만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인생처럼 아주 희망적인 해피엔딩일 것입니다. 거기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해도요. 살아갈 수록 더 모호해지는 삶의 불가해성을 뚫고 나가는 것은 그저 한바탕의 웃음입니다. 웬지 생각없이 웃고나면 무언가 삶의 본질에 다가선 느낌을 받게 됩니다. 누군가는 눈물이 날 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연극을 본 여러분이 우리 삶의 무의미를 긍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북교사극단 '두르륵'에서는 보다 현대적인 연출로 가볍게 각색하여 <굿티처>라는 제목으로 관객 여러분께 보여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닥터가 아니라 티처니까요. 의사가 환자를 돌보고 치료하듯 선생님들은 누구보다 아이들을 돌보고 챙기십니다. 그러나 부디 먼저 자신을 챙기시고 아프지 마십시오 선생님들. 연극이 끝나고 난 뒤에도 모든 굿티처 여러분께 웃음과 행복만이 가득하기를 빌겠습니다.

# 연출의 변

시놉시스를 사실상 연출의 말처럼 이미 썼기에 못다한 개인적인 이야기를 지면을 빌려 해볼까 합니다.

대학교 때 처음 연극동아리에 가입한지 십년이 넘는 지금까지도 연극을 하게 될 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연극은 정말 망각의 예술입니다. 끝없이 같은 후회와 행복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후회보다 행복의 감정이 크기에 반복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유독 힘들었습니다. 연극을 할 지 말 지 고민도 수십번, 시작하고 나서도 포기할까 말까를 수도 없이 고민했습니다. 취미로 하기에는 참 손이 많이 가고 스트레스 받는 작업입니다. 이런저런 핑계와 투정, 외면과 미움, 의심과 괴로움. 하지만 이번에도 결국 다시 무대로 돌아왔습니다. 너무 혼자 짊어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혼자만의 굴 속에 있을 때도 불을 비추고 찾아와준 사람들, 꺼내고 끌어올려준 사람들이 있어서 다시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만 있으면 연극은 시작됩니다. 반면에 사람이 없으면 그 걸로 끝입니다. 연극은 결코 혼자 만들 수 없습니다. 세상 여느일이 그렇습니다.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이번에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사람을 구하는 일, 도움을 구하는 일이 자신을 구하는 일인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고마운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먼저, 연극을 처음 해본다는게 믿기지 않은 배우님들, 부족한 연출을 믿고 따라오다가 어느새 추월까지 해버리셨네요. 이제는 제가 따라가기 힘들 정도입니다. 처음이라 모든게 힘들고 어려웠을 것임에도 그 모든 도전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해낸 여러분이 제게는 최고의 배우들입니다.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사실상 공동연출 역할을 해준 백준현 선생님, 감사합니다. 대본, 디렉팅부터 음향 조명 총무, 스트레스 해소까지 모든 일을 함께 해준 선생님이 없었으면 극단은 망했습니다. 그리고 교사극단 최고의 매니저 겸 기획 겸 스태프 겸 비타민 문가람 선생님 항상 지친 모두에게 힘이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문가람 친구 이가을 선생님도 친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인력난에 시달리는 교사극단을 위해 바쁘심에도 발벗고 나서 주신 (추우니깐 양말은 신고 좀 다니세요) 이승화 선생님! 덕분에 아직까지도 연극을 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항상 뒤에서 조언해주시고 큰 도움을 주시는 최진호 교감선생님과 육아에 지친 몸으로 시간을 쪼개 포스터 및 팸플릿을 제작해주시고 그 외 많은 도움 주신 정명진 선생님 (과이를 허락해주신 형수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느덧 겨울입니다. 날이 몹시 춥습니다. 집에 늦게 들어오는 아들이 잘 때 추울까봐 미리 틀어놓은 전기장판에서 사랑을 느낍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추위를 뚫고 극장을 찾아주신 관객 여러분께 고개숙여 감사드립니다. 관객 여러분이 없으면 연극은 없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코앞이네요. 행복의 절정이 가까워져 오고 있습니다. 연극구경처럼 인생의 커다란 즐거움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episode

〈재채기〉

〈가정교사〉

〈유혹〉

〈의지할 곳 없는 신세〉

〈생일선물〉